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 관계 및 또래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economic difficulty on children's quality of life -focused on mediation effect of parent-child and peer relationships-

최은희* · 손영빈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강사 · 서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사

Choi, Eun Hee · Son, Young Bin

Dep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eowon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on effects of relationships of parent-child and between-peers based on the effects of economic difficulty on quality of lif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Data was obtained from students (N= 493) at seven elementary schools in Choongbuk Province and analyzed with SPSS 12.0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5.0.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economic difficulty gives a direct effect on elementary students' quality of life and is mediated with parent-child and between-peers relationships. Also, economic difficulty influences children's quality of life when a parent-child relationship is combined with a between-peers relationship.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at welfare centers and elementary schools have to teach students to have desirable sense of value. Also, schools need to provide education programs for parents to improve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various activities for students to develop between-peers relationship.

Key Words : economic difficulty, quality of life, parent-child relationship, between-peers relationship

I. 서론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초기의 노력은 주로 개인당 평균소득과 같은 경제적인 또는 물질적인 측면만을 고려해 오다가 점차 삶을 보다 잘 평가하기 위하여 교육수준, 정치참여도 및 인구의 증가나 이동과 같은 인구 사회적 지표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들을 시작하였다(박동호, 2006). 그러나 삶의 질이란 것이 개인이 그들의 생활 속에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삶의 질에 영향을 줄 것이라 가정되는 객관적 지표들만을 가지고 개인이 경험하는 삶의 질을 평가한다는 것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개인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만족하는

지를 측정함으로써 그 필요성들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윤창영, 2001; Diener, Eunkook, Richard & Heidi, 1999; Myers & Diener, 1995). 즉, 삶의 질이란 당사자가 실제 생활에서 경험하는 생활상태에 대한 주관적 느낌을 의미하고,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Diener & Diener, 1995).

이런 정의를 바탕으로 그동안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성인을 중심(김기원, 2003; 김혜원, 김명소, 2000; 성정애, 2006; Ulrich, Ludger & Klaus, 2007)으로 이루어졌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안현진, 2007; Jeffrey, William & Robert, 2007; Rainer, 2005)는 극히 소수로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아동복지의 영역에서 간과되었던 분야라고 할 수 있다.

* Corresponding author: Choi, Eun Hee
Tel: 043) 836-6213
E-mail: towardpine@hanmail.net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아동은 하나의 권리의 주체로서 보다는 부모의 욕구에 종속된 존재로 사교육의 홍수 속에서(이승훈, 2004; 정재미, 2006) 충분한 심리적·정서적 만족감과 복지감을 제공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족 및 사회·환경적 요인은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문제화 되어 아동복지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기의 삶이 성인기까지 직결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생애 주기상 초기단계인 아동기의 삶의 질을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선행연구들은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를 다양하게 바라보고 있다. 먼저 경제적인 측면을 다룬 연구들을 보면 경제적 수준과 삶의 질 간에는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다(이명순, 변미희, 2007; Diner et al, 1999).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삶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문선화, 류기형, 김경호, 이경남, 홍보선, 2000). 즉, 빈곤은 아동의 삶의 기회를 박탈하며, 아동의 가능성과 소망을 무시하고 이는 다음 세대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Piachaud, & Sutherland, 2001).

다음은 관계적인 측면으로 먼저 부모-자녀관계는 아동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모는 아동이 사회화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모와 형성된 관계는 아동의 삶의 태도 및 삶의 질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임미향, 박영신과 김의철(2006)의 연구에 의하면 미래의 성공과 건강을 위해,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족의 도움과 화목, 경제적 안정 및 성공적인 자녀양육 등 가정환경 및 지원이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행복한 삶의 척도와 심리적 안녕감을 구성하는 척도로 대인관계 및 부모, 친지간의 원만한 관계를 꼽고 있으며(김명소, 김혜원, 한영석, 임지원, 2003) 한유선(1996)은 가정환경과 학교환경에 따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부모의 자녀양육유형이 민주적이거나 허용적인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제시하고 있다. 부모-자녀 관계와 함께 아동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관계요인은 또래관계이다. 또래관계는 평등성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성인과의 관계와 다른 독특한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평생에 걸쳐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주는 많은 기술 태도, 경험 등을 얻게 된다(신주혜, 1998).

또래관계가 원만한 아동은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적응을 잘 하는 반면 또래로부터 거부당하는 아동은 사회적

부적응을 나타낼 위험성이 높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 아동들은 스트레스 사건에 대처하는데 어렵고 인간관계에 많은 실패를 겪는다(Paker & Asher, 1987, Coie, 1990: 김윤경, 이옥경 재인용, 2001). 따라서 어떤 또래관계를 갖느냐는 아동의 사회적응 및 전반적인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경제적 수준,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가 아동의 삶의 질에 미치는 개별적 영향과 함께 세 요인의 관계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낮은 경제적 수준은 부모의 우울과 같은 심리적 스트레스와 부모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부모-자녀관계는 아동의 사회·정서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Compas, Howell, Phares, Williams & Ledoux, 1989; Patterson, 1988). 즉, 가족성원들 간의 이런 긴장 관계는 가족기능을 약화시켜 자녀의 성장 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게 되고(강희경, 2003; 박신영, 2005) 이것이 아동의 삶의 질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렇게 형성된 부모-자녀관계는 또래관계에도 작용하는데(나유미, 2001; 임연진, 1999) 아동은 부모와의 대면적 상호작용을 통해 또래와 성공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을 배우고 연습하며 정교화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Elicken, England & Sroufe, 1992; Penelope, 2001; Ryan, Susan, Stiller & Lynch, 1994; Susan, Robin & Ross, 1999).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가는 자녀의 사회적응능력과 바람직한 또래관계 형성을 위한 주요변수가 된다. 학령전기부터 학령기까지 지속된 7년간의 종단연구에서 Pettit, Bates와 Dodge(1997)는 부모의 지지적인 양육태도가 학령초기는 물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아동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학업수행에 영향을 주고 또래관계에서도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긍정적이고 원활할수록 또래와 원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심희옥, 2000; 원유미, 2000). 이처럼, 부모-자녀 관계는 또래관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아동의 삶의 질로 직결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삶의 질에 관한 연구에서 간과된 아동을 대상으로 경제적 어려움,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와 삶의 질의 관계 및 그 영향 경로를 탐색하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아동의 삶의 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입방법을 개발하는데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경제적 어려움은 아동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가?
- 2) 경제적 어려움은 부모-자녀관계를 매개로 아동의 삶

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가?

- 3) 경제적 어려움은 또래관계를 매개로 아동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가?
- 4) 경제적 어려움은 부모-자녀관계를 거쳐 또래관계를 매개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북지역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5, 6학년생을 표집대상으로 하였다. 표집방법은 2개의 시지역과 1개의 군지역으로 나누어 임의표집 하였으며, 2개의 시지역에는 도심지에 위치한 학교와 농촌지역 학교를 포함하였다.

자료수집은 2007년 7월 2일부터 7월 11일까지 연구자가 7개 학교를 방문하여 담임선생님께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후 설문지를 배포하고 조사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528부이며 그중 무성의하게 응답한 설문지 31부와 본 연구가 부모-자녀관계를 매개로 하는 변수를 고찰하기에 조손가정의 아동(4명)을 제외하고 493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조사도구

1) 삶의 질

삶의 질에 관한 척도는 Campbell(1981)의 척도를 이명신(1998)이 번안하고, 이혜진(2005)이 사용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적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것으로, 최근의 경험에 대한 감정(삶에 대한 느낌)을 재는 양극형용사 8문항과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재는 단일문항으로 5점 척도로 측정을 하였다. 문항은 '삶이 즐겁다, 삶이 희망적이다, 외롭다'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정적인 질문은 역채점을 실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삶에 대한 느낌이 긍정적이며 질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신뢰도는 Cronbach α .91이었다.

2) 경제적 어려움

아동이 자기 가족이 겪고 있는 빈곤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를 알아 보기위해 어주경(1998)이 제작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래는 12문항이었으나 시대적인 흐름

을 반영하여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2문항(우리 집 냉장고에 김치밖에 없을 때가 있다, 우리 집은 외식을 하지 못한다)을 제외하고 '부모님이 학원비가 비싸다고 학원을 그만 두라고 하신 적이 있다'를 포함하여 10문항만을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어려움 심한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α .83이었다.

3) 부모-자녀관계

부모-자녀관계는 '부모와 아동간의 정서적 친밀감과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적 관계'를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Moraland & Schewabal(1983)이 제작한 Parent-Child Relation Scale을 주소희(2003)가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부모님에게 마음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다' 등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좋은 부모-자녀관계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α .8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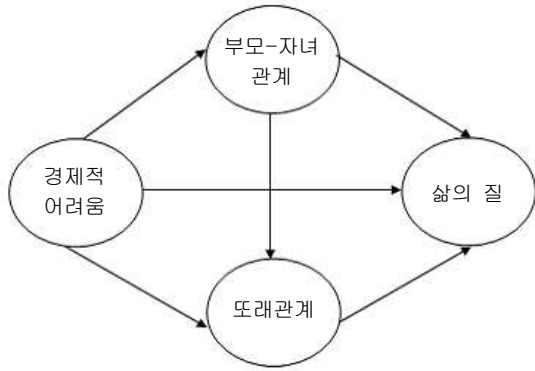
4) 또래관계

또래관계 척도는 이주리(1994)가 제작한 또래환경평가 척도 중에서 고학년 아동을 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는 정서적 지지영역, 공동 활동영역, 교환적 협동영역 17문항(내가 아플 때 친구들이 전화를 걸어주거나 병문안 와준다, 나는 친구와 같이 운동한다, 내가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친구들이 같이 찾아 준다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을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또래관계가 좋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94이다.

3. 연구모형 및 자료분석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과 AMOS 5.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아동의 삶의 질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절차는 개념측정의 적합도를 검토하기 위한 측정모형을 먼저 추정하고, 이러한 단계에서 얻은 측정모형을 활용하여 구조모형분석을 진행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모형을 구성하는 모수의 추정뿐 아니라 전반적인 적합도와 변수들 간의 직·간접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할 경우에 유용한 분석이다. 모형의 적합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카이제곱 통계량, NFI, TLI, AGFI, RMSEA 등을 보았다. 모든 모수치들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절차에



[그림 1] 아동의 삶의 질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과 부모-자녀관계 및 또래관계의 영향: 제안된 연구모형

의해 산출되었으며, 잠재변인으로 사용되는 모든 측정변수에 대해 여러 항목을 합산하거나 평균한 점수를 산출하여 하나의 지표로 활용하는 항목 묶기 방법을 사용하였다. 부모-자녀관계, 삶의 질과 같이 단일차원 척도는 하위개념이 없기 때문에 무작위적으로 2등분으로 나눠 합산한 점수를 산출하여 지표로 사용하였고, 또래관계는 하위개념을 구성하는 항목을 합산한 점수를 산출하여 지표로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는 남자 253명 (51.3%), 여자 240명(48.7%)이며, 이들은 5학년 235명(47.7%), 6학년 258명(52.3%)으로 주로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다(390명, 79.1%).

가족형태는 대부분 양부모와 거주하고 있으며(430명, 87.3%), 한부모 가정은 63명으로 12.8%를 차지하였다. 부모의 소득수준이 상(301만원 이상)인 경우 118명(23.9%), 중(151만원부터 300만원) 351명(71.2%)이었으며, 하(150만원 이하)인 경우는 24명(4.9%)으로 중상의 분포를 보였다. 대상 아동 중 방과 후 학원을 다니는 학생은 318명 64.5%이었으며, 아무데도 다니지 않는 아동은 109명 22.1%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성

변수	집단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253	51.3
	여	240	48.7
소계		493	100.0
학년	5학년	235	47.7
	6학년	258	52.3
소계		493	100.0
거주 지역	농촌	103	20.9
	중소도시	390	79.1
소계		493	100.0
가족 형태	양부모	430	87.3
	한부모	63	12.8
소계		493	100.0
소득 수준	상	118	23.9
	중	351	71.2
	하	24	4.9
소계		493	100.0
방과후 이용시설	학원	318	64.5
	아무데도 안감	109	22.1
	복지관/공부방 등	66	13.4
소계		493	100.0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표 2>는 주요 잠재변인 경제적 어려움,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 및 삶의 질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정규성을 검토하였다. 자료의 다변량 정규성 검토를 위해, 각 변수의 왜도와 첨도를 참조하였다. 각 변수의 왜도와 첨도는 모두 각각 절대값 3미만, 10미만으로 정규성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은 구조방정식 모형의 추정에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으므로 다중공선성을 검토하였다. 먼저 변수간의 상관행렬을 검토한 결과 상관계수는 .28~.51까지 분포하였고 절대값이 .80이상인 것은 발견되지 않

<표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치

변수	평균(SD)	왜도(SD)	첨도(SD)	
경제적 어려움	1.36 (.49)	2.0(.11)	4.03(.22)	
부모-자녀관계	4.16 (.81)	-.98(.11)	.25(.22)	
또래 관계	정서적지지	3.17 (.97)	-.29(.11)	-.42(.22)
	공동활동	3.62(1.00)	-.57(.11)	-.41(.22)
	교환적활동	3.91(1.06)	-.85(.11)	-.02(.22)
삶의 질	3.71 (.93)	-.46(.11)	-.52(.22)	

<표 3> 각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경제적 어려움	부모-자녀 관계	또래 관계	삶의 질
경제적 어려움				
부모관계	-.38**			
또래관계	-.28**	.39**		
삶의 질	-.37**	.51**	.50**	

** $p < .01$

았다. 또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다중공선성의 지표인 분산팽창지수(VIF)를 살펴본 결과 VIF는 모두 10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설명 변수 간에는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모형검증 결과분석

1) 측정모형분석

측정모형분석은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설계된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 경제적 어려움,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 삶의 질은 잠재변수로서 다중지표를 사용하여 구성하는데 잠재변수는 직접적으로 측정될 수 없기 때문에 잠재변수의 추정치를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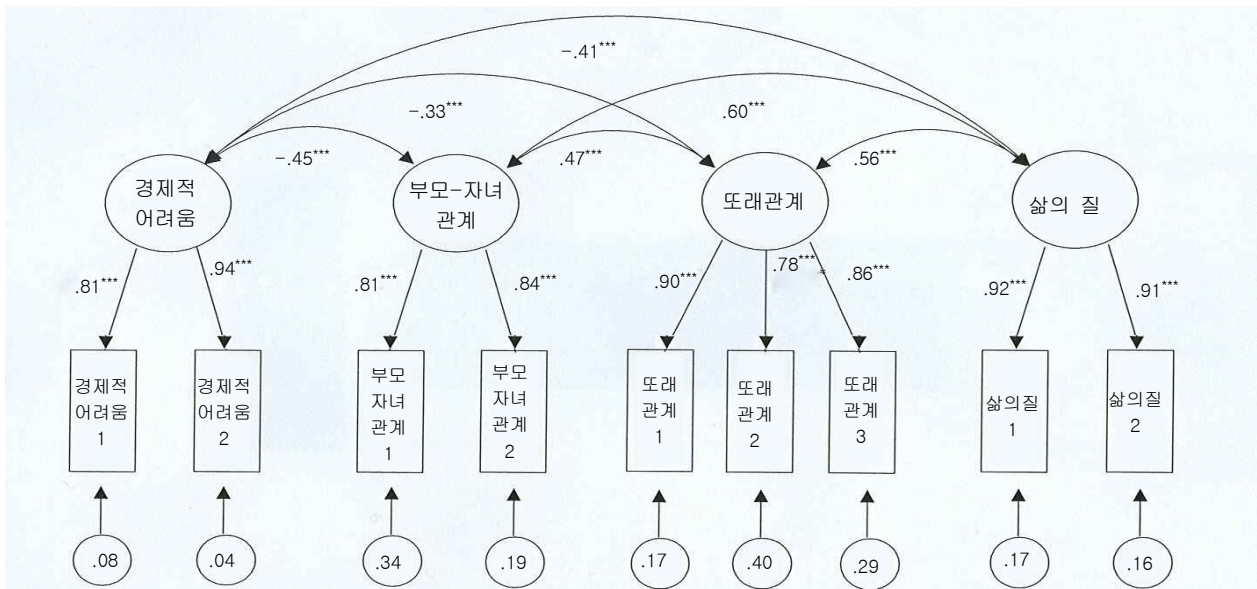
하기 위해서는 잠재변수를 척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잠재변수를 척도화 하는 방법에는 잠재변수의 분산을 1로 고정시키는 방법과 잠재변수 당 하나의 지표를 1로 고정시켜 잠재변수와 그 지표가 동일한 척도를 갖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배병렬, 2005), 본 연구에서는 잠재변수 당 하나의 지표를 1로 고정하는 방법을 택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 분석결과는 [그림 2]와 같이 요인적재량은 유의수준 .001에서 모두 유의미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 = 51.085(df=21)$, $p = .000$ 으로 카이제곱통계량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적합도 지수 $NFI = .980$, $TLI = .980$, $AGFI = .952$, $RMSEA = .054$ 로 볼 때, 본 연구의 측정모형이 자료에 비교적 잘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2) 구조방정식모형분석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연구모형의 적합도지수는 $\chi^2 = 51.085(df=21)$, $p = .000$, $NFI = .980$, $TLI = .980$, $AGFI = .952$, $RMSEA = .054$ 로 나타나 본 연구모형이 자료에 부합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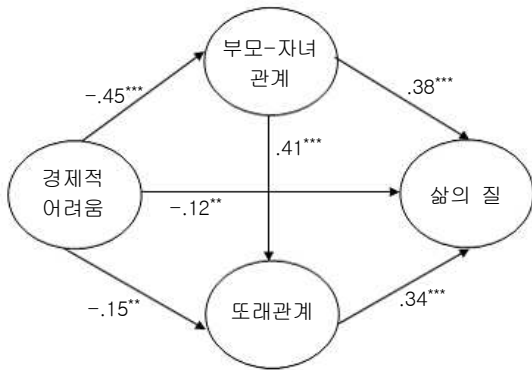
연구모형에서 제안한 경로는 경제적 어려움 → 삶의 질 직접경로, 경제적 어려움 → 부모-자녀관계 → 삶의 질과 경제적 어려움 → 또래관계 → 삶의 질, 경제적 어려움 → 부모-자녀관계 → 또래관계 → 삶의 질의 간접경로 모



[그림 2] 잠재변수의 측정모형

$\chi^2 = 51.085(df=21)$, $p = .000$, $NFI = .980$, $TLI = .980$, $AGFI = .952$, $RMSEA = .054$.

주. 경제적 어려움은 점수가 높을수록 빈곤함을 의미. *** $p < .001$



[그림 3] 모형의 경로계수와 적합도

$\chi^2=51.085(df=21)$, $p=.000$, $NFI=.980$, $TLI=.980$, $AGFI=.952$, $RMSEA=.054$. ** $p<.01$, *** $p<.001$
 주. 경제적 어려움은 점수가 높을수록 빈곤함을 의미

두 유의미하였다. 즉, 경제적 어려움이 높을수록 삶의 질은 낮아지며, 경제적 어려움이 높을수록 부모-자녀관계는 낮아지고, 부모-자녀관계는 삶의 질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 또래관계와 경제적 어려움은 부모-자녀관계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더 어려울수록 또래관계가 낮아지며 삶의 질도 낮아진다. 마지막 경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부모-자녀 간의 관계수준은 낮아지고 부모-자녀 간의 관계는 또래관계와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3) 효과분해

각 변수들 간 인과효과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하여 살펴보면, 경제적 어려움,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와 삶의 질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표 4>는 연구모형에서 나타난 경로계수의 효과를 분해한 것이다.

<표 4>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경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경로 1) 경제적 어려움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경제적 어려움이 높을수록 삶의 질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직접효과는 -.124이다.

(경로 2) 경제적 어려움이 부모-자녀관계를 매개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경제적 어려움이 높을수록 부모-자녀관계는 낮아지고 (-.454), 부모-자녀관계가 낮을수록 삶의 질은 낮게 나타난다 (.381). 이 경로를 통해 설명되는 효과는 -.173(-.454×.381)이다.

(경로 3) 경제적 어려움이 또래관계를 매개로 삶의 질에 영

<표 4> 이론 변인간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표준화계수

경로	총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경제적 어려움→삶의 질	-.410	-.124	.286
경제적 어려움→부모-자녀관계	-.454	-.454	-
경제적 어려움→또래관계	-.334	-.150	-.184
부모-자녀관계→또래관계	.406	.406	-
부모-자녀관계→삶의 질	.518	.381	.137
또래관계 →삶의 질	.337	.337	-

향을 미치는 경로.

경제적 어려움이 높을수록 아동의 또래관계는 악화되고(-.150), 아동의 또래관계가 낮아지면 삶의 질 역시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337). 이 경로를 통해 설명되는 효과는 -.050(-.150×.337)이다.

(경로 4) 경제적 어려움이 부모-자녀관계를 거쳐 또래관계를 매개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경제적 어려움이 높을수록 부모-자녀관계는 낮아지고 (-.454), 부모-자녀관계 수준이 낮을수록 또래관계는 낮아지며 (.406), 또래와의 관계가 낮을수록 삶의 질이 낮아진다(.337). 이 경로를 통해 설명되는 효과는 -.062(-.454×.406×.337)이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경제적 어려움,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총 효과는 -.410이며 (경로 2)의 효과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경로 1), (경로 4), (경로 3) 순임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이 지각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부모-자녀관계 및 또래관계가 삶의 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경제적 어려움은 부모-자녀관계를 거쳐 또래와의 관계를 매개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이론적 함의 및 실천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결과 경제적 어려움은 아동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리고 부모-자녀관계를 통해 또래관계를 거쳐 아동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느끼는 삶의 질이 가정의 경제상태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선행연구결과(문선화 외,

2000;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 양계민, 2000; Quittner et al, 2006)를 재확인 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대상 아동의 부모소득수준이 전반적으로 중간(71.2%)정도이었고, 아동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도 전반적으로 수준이 낮았던 점을 감안하면 절대적인 상태의 경제적 빈곤보다는 상대적인 경제적 빈곤감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이 부모-자녀관계를 매개로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경로 2) 효과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경로(경로 1) 효과보다, 또한 또래관계를 매개로한 간접경로(경로 3)의 효과보다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나, 부모와의 관계의 중요성을 입증했다고 할 수 있다. 즉, 경제적인 어려움은 부모의 적절치 못한 양육형태 및 의사소통에도 영향을 미친다(백현정, 1999; 정진경, 2002; 한혜영 2004). 경제적으로 빈곤한 부모는 낮은 학력과 낮은 수입, 시간부족으로 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관리감독 등 역할수행에 어려움을 가지며, 이런 부적절한 양육태도는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가정경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부모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이는 자녀를 정서적으로 지지 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부부싸움, 폭언, 학대 등으로 아동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은 부모-자녀관계를 통하여 아동은 정서적,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궁극적으로 일상의 삶에서 행복감과 만족감은 저하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부모-자녀관계가 또래관계를 매개로 아동의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부모와 원활한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거부당하는 아동이 또래들과의 관계에서도 만성적으로 거부당하고(Finnegan, Hodges & Perry, 1998), 반대로 부모의 애정, 온정, 관심을 받은 아동은 자기개념을 긍정적으로 촉진하고 또래관계에서 수용적이라는 선행연구(채혜연, 1999)를 지지하였다. 이처럼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아동은 또래관계에서도 수용적이어서 아동의 삶의 질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또래관계는 부모-자녀관계보다 상대적으로 삶의 질에 덜 영향을 미쳤으나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기질과 행동에 해로운 영향을 미쳐 흥분하기 쉽고 다루기 힘든 기질이나 행동을 유발하고(Elde, Liker & Cross, 1984), 내재화 행동과 외현화 행동 문제 수준을 높이며, 친구들의 수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의 경제적 곤란이 지속될수록 아동의 친구관계는 더 어려워졌다(Charlotte, Nancy, Pamela & Janis, 1991)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사춘기의 초기단계인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의 대인관계의 영향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또래관계로 옮겨가기 시

작하는 시점임을 고려할 때 어려워진 친구관계는 아동기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임의표집을 사용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이상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그동안 삶의 질에 대한 연구들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직접적인 탐색을 주로 하여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함께 존재할 때 어떤 경로를 거쳐 유의미한지 총체적인 입장에서 접근하지는 못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아동의 삶의 질을 파악하는데 있어 경제적 어려움,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와 삶의 질의 관계를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하여 어떤 인과관계를 갖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를 매개로 그리고 부모-자녀관계를 거쳐 또래관계를 통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임을 밝혔다. 특히 매개효과에 있어 아동기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인이 또래관계가 아닌 부모-자녀관계라는 것이며 이는 아동기 삶의 질에 가장 중요한 환경으로 고려해야할 요인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경제적 어려움,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가 아동의 삶의 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천적 함의를 살펴보면, 먼저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동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 즉, 상대적 빈곤감을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가치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질만능을 지향하는 현대의 삶에 길들여진 아동들이 물질 이외의 또 다른 가치에서 행복감을 체험하고 추구할 수 있도록 가치관에 대한 교육이 학교와 각 복지관, 아동센터 등 다양한 현장의 자아성장 프로그램 및 가치관 형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부모-자녀관계는 아동의 삶의 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부모-자녀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부모교육프로그램, 부모-자녀간의 동반 캠프 등을 통하여 관계 개선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상 일부의 부모들은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은 많으나 그 방법을 모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이순형, 신양재, 김영주, 1991), 또한 경제적 활동에 바빠 자녀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증진시키는 것은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런 프로그램의 참여를 위한 시간을 따로 할애하는 것이 어려운 형편이므로 학교 현장과 연결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은 부모의 참여율을 높이고 효과성을 제고하는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또래관계의 발달을 위해 바람직한 또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질성을

갖고 있는 유형끼리 어울리는 것은 아동기 또래관계의 특성이다. 또래와의 관계가 긍정적일 때 아동은 자신감을 얻고, 충족감을 주어 행복감을 느끼며 심리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또래간 함께 할 수 있는 봉사활동, 모임 등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봉사정신, 협동심을 배우는 것은 삶의 중요한 가치들을 배우는 것이며 만족감을 높여가는 길이 될 것이다.

주제어 : 삶의 질, 경제적 어려움, 부모-자녀관계, 또래 관계

참 고 문 헌

- 강희경(2003). 빈곤가족에서의 학령기아동의 자존감. 대한아동간호학회, 9, 301-308.
- 김기원(2003). 시각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와 삶의 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명소, 김혜원, 한영석, 임지영(2003). 한국인의 행복한 삶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분석. 한국심리학회: 일반, 22, 1-33.
- 김윤경, 이옥경(2001). 아동과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과 행동특성. 한국심리학회: 발달, 14(2), 65-82.
- 김혜원, 김명소(2000).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의 심리적 안녕감의 구조분석 및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분석. 한국심리학회지:여성, 5(1), 27-41.
- 나유미(2001). 부모-자녀 관계와 아동의 또래관계 간의 연계. 한국아동학회, 22(1), 83-96.
- 문선화, 류기형, 김경호, 이경남, 홍봉선(2000). 아동의 삶의 질. 한국아동복지학회, 9, 9-49.
- 박동호(2006). 아동권이 지체장애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신영(2005).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 양계민(2000).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생활만족도 차이와 형성 및 영향. 한국심리학회, 5(1), 94-118.
- 배병렬(2005). 구조방정식모델: 이해와 활용. 청람.
- 백현정(1999). 아동이 지각한 경제적 어려움, 부부갈등, 양육태도 및 애착과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정애(2006). 농촌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주혜(1998). 단짝친구관계와 학교생활적응: 초등학생 4학년과 중학생 2학년을 대상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희옥, 김영미(2000). 부모와의 의사소통, 교사와의 관계 및 교내외 활동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 21(4), 159-175.
- 안현진(2007). 주 5일 수업제 실시와 아동의 삶의 질과의 관계. 대구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어주경(1998). 저소득층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원유미(2000). 부모의 양육태도, 결혼만족도, 의사결정 유형과 자녀 특성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창영(2001). 기혼 직장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연구: 직장-가정 갈등 모형과 영역별 삶의 질 모형 통합.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명순, 변미희(2007). 청소년에 대한 가족 지지가 욕구충족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회, 12, 61-81.
- 이순형, 신양재, 김영주(1991). 빈곤가정 아동의 환경지각연구. 한국아동학회, 16, 183-195.
- 이승훈(2004). 마산·창원지역 고등학교 사교육 실태연구: 학부모가계지출 부담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주리(1994). 유아 및 아동의 가정환경 및 또래환경과 역량지각.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혜진(2005). 그룹홈 아동, 청소년의 심리 사회 및 인지적 특성.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미향, 박영신, 김의철(2006). 초등학교생과 부모의 삶의 질 지각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한국아동교육학회, 14, 205-222.
- 임연진(1999). 또래지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정보처리능력과 사회적 행동 특성.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정재미(2006). 초등학교 학생의 사교육 이용실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진경(2002). 부모-자녀관계 및 또래 관계와 비행: 정서적 자율성과 행동적 자율성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주소희(2004). 부모 이혼 후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채혜연(1999). 아동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 자기개념 및 또래 지위와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유선(1996). 청소년의 주변 환경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혜영(2004).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발달특성에 관한 연구: 빈곤 가족과 비빈곤 가족 비교를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Charlotte, J. P., Nancy, A. V., Pamela C. G., & Janis, B.

- K.(1991). Income level, gender, and household composition as predictors of children's peer companionship outside of school.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 Psychology, 12*(4), 447-465.
- Coie, J. D.(1990). Toward a theory of peer rejection. In S. R. Asher & J. D. Coie(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pp. 365-402).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mpas, B. E., Howell, D. C., Phares, V., Williams, R. A., & Ledoux, N.(1989). Parent and child stress symptom: An integrative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25*, 550-559.
- Diener, E., & Diener, M.(1995).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Psychology, 68*, 653-663.
- Diener, E., Eunkook, M. Suh, Richard, E. L., & Heidi, L. S.(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2), 276-302.
- Elde, G. H., Liker, J. K., & Cross, C. E. (1984). Parent-child behavior in the great depression: Life course and intergenerational influences. In P. B. Baltes & O. G.
- Elicken, J., England, M., & Sroufe, L. (1992). Predicting peer competence and peer relationships In R. D. Darke, & G. W. Ladd(Eds), *family-peer relationships : Modes of linkage, 77-103.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Finnegan, R. D., Hodges, E., & Perry, D. G.(1998). Victimization by peer associations with children's reports of mother-child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Psychology, 75*, 1076-1086.
- Jeffrey, J. F., William, J. S., & Robert, A. E.(2007). Counting blessings in early adolescents: An experimental study of gratitude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 1-21.
- Myers, D. G., & Diener, E.(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 10-19.
- Paker, J. G., & Asher, S. R.(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3), 357-389.
- Patterson, G.(1988). Stress: A Change agent for family process. In N. Garnezy & M. Rutter(Eds),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in children.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Penelope, G. V.(2001). Parenting attitudes and children's understanding of mind a comparison of Korean American and Anglo-American families. *Cognitive Development, 16*(3), 703-809.
- Pettit, G. S., Bates, J. E., & Dodge, K. A.(1997). Supportive Parenting, Ecological Context, and children's Adjustment: A Seven-Year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68*(5), 908-923.
- Piachaud, D., & Sutherland, H.(2001). Child poverty in Britain and the new labour government. *Journal of Social Policy, 30*(1), 95-118.
- Quittner, A., Schechter, M., Rasoulivan, L., Pasta, D., & Wagener, J.(2006). Effects of socioeconomic status, race and ethnicity on quality of life in a national database. *Journal of Cystic Fibrosis, 5*(1), 102.
- Ryan, R., Stiller, J., & Lynch.(1994). Representations of relationships to teachers, parents, and, friends as predictors of academic motiva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4*, 226-249.
- Rainer, W.(2005). Parental separation and well-being of youth: Evidence from Germany. *Journal of Socio-Economics, 35*, 197-208.
- Susan, L. I., Robin, O. C., & Ross, D. P.(1999). Parent and child expressed affect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Modeling direct and indirect pathways. *Development Psychology, 35*(2), 547-560.
- Ulrich, W., Ludger, P., & Klaus, H.(2007). Quality of life in elderly patients with cancer: A short review. *European Journal of Cancer, 43*(5), 203-210.

(2007. 11. 23 접수; 2008. 6. 5 채택)